

제주의 조선유학자 변경봉(邊景鵬)의 이중문화정체성*

김치원**

〈 차 례 〉

1. 정착지 제주와 정착주민
2. 변경봉의 제주문화 이해
3. 변경봉의 조선유학 이해
4. 이중문화 정체성과 경계인
5. 정착지 제주의 문화정체성

1. 정착지 제주와 정착주민

제주와 제주 사람은 지금 ‘문화(文化)’의 시대를 온 몸으로 겪고 있다. 최근 십 년 안팎의 일이지만, 그 원인을 쫓다보면 1964년 〈제주도 건설 종합계획〉에서 ‘관광(觀光)’을 제주 산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관광’이란 말은 『주역』 관괘(觀卦) 육사(六四)의 효사(爻辭) “나라의 빛남을 보니 왕의 손님 노릇을 하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381).

** 제주대학교 철학과, dasan@jejunu.ac.kr

2 • 문화와 융합 제39권 3호(통권 47집)

데 이롭다.”¹⁾에서 비롯되었다. 어원대로라면 ‘나라의 빛남을 본다.’는 것이므로 휴양(休養)이나 유람(遊覽), 그리고 여행(旅行)보다는 연수나 견학에 더 가깝다. ‘임금의 덕화(德化)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습과 선량한 시속(美風良俗)’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광은 본디 ‘자연경관’보다는 ‘사회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된 자연경관도 임금의 덕화가 미친 결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는 그동안 ‘국내외 유일(有一)’을 자랑하는 자연경관을 가진 ‘휴양의 섬’으로 주목받았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광지 제주’는 사실상 이국적(異國的) 경관과 정취를 내세운 ‘휴양지’였다. 덕분에 온 나라가 근대화라는 명분을 내건 산업화에 매진하는 동안 제주는 ‘산업화에서 소외된 관광지’로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5년 세계평화의 섬 공식지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06년 제주 올레 1코스 개장 및 제주항공 설립,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제주 순이동물 증가 등을 거치면서 제주는 문화를 내건 체류형 관광지로, 더 나아가서는 탈(脫)신자유주의를 꿈꾸는 ‘문화이주민’들의 정착지로 변신했다(김치완 2016b:122-123).

‘제주의 역설’은 ‘산업화에서 소외된 관광지’이었으므로 ‘산업화가 비껴나간 문화이주민’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역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동양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만 오리엔탈리스트의 말과 담론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오리엔탈리즘의 역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말과 담론이 열광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제주는 스스로 존재하지

1) “經上 觀卦”, 周易 六四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象曰 觀國之光 尚賓也.

못하고, 다만 제주를 말하는 이들의 말과 담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모양이다. 제주를 산업화에서 소외시킨 것도, 그렇게 소외된 제주를 산업화의 폭력에서 비껴나 있는 곳이라고 열광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제주와 그곳에서 살았던 제주 사람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그런 제주와 제주 사람은 없다.’

그런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제주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구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착주민’을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²⁾으로 정의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오늘 제주에 엄연히 존재하는 ‘정착주민’은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곧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질 ‘제주 사람’이다. 그리고 제주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제주지역사회에서 흔히 ‘문화이주민’이라고 불리는 정착주민은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배우면서 도민(島民)보다 더 도민 같은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도민은 정착주민이 배우는 제주어와 제주문화에서 소외된 채 태생만 제주인 주민으로 남을 처지에 놓였다. 더 큰 문제는 도민보다 더 도민 같은 정체성을 획득한 정착주민과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법

2) 오윤정 외(2014:297-298)에 따르면 구약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주민’을 표현하는 단어인 ‘게르’를 빌려 쓴 이주민 연구는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의 사전적 정의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인데, 제주에서는 ‘정착주민’이라는 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이라고 지칭한 대상을 가리킬 때는 ‘정착주민’이라고 쓴다.

4 • 문화와 융합 제39권 3호(통권 47집)

이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많던 적던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곧,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을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에 사는 모두가 이제는 ‘바탕이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 집단의 경계선상에 있고,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경계인이 되었다. 경계인으로 넘쳐나지만 제주는 여전히 계몽적이다. 정착주민에게는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도민에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낮설게 여기는 법을 가르친다. 성급한 기대일 수 있지만 도민의 커뮤니티는 더 이상 투과성(permeability)이 좋은 외피(tunica)에 비해 투과성이 제로인 내체(corpus)로 이루어진 이중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주는 그동안의 변방성, 폐쇄성을 벗어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도민이건 정착주민이건 제주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금까지 제주적이었던 것과 앞으로 제주적일 것이 충돌하고 뒤섞이는 현장에서 ‘제주적이면서도 제주적이지 않은 문화정체성’, 곧 이중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습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연구는 과거와 미래, 제주적인 것과 제주적이지 않은 것이 교차하는 현장과 그곳에 놓인 경계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조선시대 제주출신 유학자를 통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시기 제주적인 것과 제주적이지 않은 것이 교차하는 현장이 빚어낸 이중문화정체성의 전범(典範)은 제주의 조선유학자, 곧 제주출신으로 조선의 유학을 배워 육지로 이주 정착한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재(一齋) 변경봉(邊景鵬, 1756~1824)이다. 고향인 제주에서 유학을 배워 과거시험에 응시하면서 한양을 오가다가 늦은 나이에 급제하여 내직과 향직을 오갔던 변경봉은 제주사람이면서 제주적인 것과 제주적이지 않은 것을 내면적으로 잘 융합시킴으로써 전형적인 이중문화 정체성을 확보했다. 이 이중문화 정체성의 면면을 살펴

보면, 오늘날 제주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변경봉의 제주문화 이해

1756년 제주도 대정읍 신도리에서 출생한 변경봉은 18세기 격랑의 시대에 내외관직을 두루 거쳤던 전형적인 조선유학자이다.³⁾ 그가 남긴 『변경봉문집(邊景鵬文集)』을 분석해보면, 제주 출신의 이 조선유학자는 출생지인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별다르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린 시절에 겪은 세 가지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 「아시삼기사기(兒時三奇事記)」, 기해년에 바다 건너 다녀온 일을 기록한 「기해도해록(己亥渡海錄)」, 갑인년과 을묘년에 참담하고 흉한 일을 겪을 때의 일을 서술한 「갑인을묘년 참홍시설(甲寅乙卯慘凶時說)」,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비롯한 중국과 한국의 사료를 인용하여 탐라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주석한 「탐라사적(耽羅事蹟)」 등에서 각각 제주의 자연경관, 민간요법과 민간신앙, 양란이후 사회경제현황, 주요 인물과 사적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우선 「아시삼기사기」에서는 어린 시절 익사할 뻔하다 살아난 세 번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 도입부에서 한라산 남쪽에 위치한 천제연(天帝淵)의 경관을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밑도 없는 계곡’, ‘만 길의 폭포’, ‘눈이 먼저 어지러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물러난다.’는 등의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였다.⁴⁾ 제주의 자연경관에 대한 고정된

3) 변경봉의 생애는 김새미오(2010:95-102)를 참조할 것.

4) “兒時三奇事記”, 邊景鵬文集 擎山之陽, 有大川名天帝淵也. 千仞絕壁之下, 作無底大壑, 天一生水渾■…■, 上潭也. 南注至海, 又有中下二潭, 皆成萬丈瀑布. 四圍危險, 人莫敢窺, ■…■. 惟上潭傍於路邊, 人或近岸府視, 則蒼壁削立,

묘사는 외지인일수록 더 자주 발견된다. 제주를 찾은 많은 목민관들과 유배인들은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경관을 곧잘 선경(仙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서 어린 시절 죽다 살아난 기억을 기이한 일(奇事)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기해도해록」은 1779년 겨울 척숙(戚叔)인 양국재(梁國粹)와 향시를 통과하여 한양에 과거시험을 보러 바다를 건널 때의 일로 시작하여, 1774년 도과(島科)에 응시하였을 때 천연두를 앓은 일, 1770년 대정현에 유배왔다가 죽은 은언공(恩彦公, 1754~1801)과 은신공(恩信公, 1755~1771)이 거쳐했던 송최정의 집에서 책을 읽다가 병을 앓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도과에 응시할 무렵 천연두를 앓게 된 원인과 치료 과정, 그리고 송최정(宋最正)의 집에서 삼개월여 머물다가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게 된 원인과 치료 과정이 인상적이다. 민간요법과 민간신앙이 부각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제주의 민간 습속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집에 기록된 민간요법이나 민간신앙은 당시 제주에서만 행해지던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부터 처방을 받기 어려운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것이었다. 변경봉도 병의 원인이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유학자다운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주에서 통용되던 민간요법이나 민간신앙의 면면을 짐작해볼 수는 있다.

1774년 도과에 응시할 무렵 변경봉은 천연두를 앓게 되었다. 그는 병을 앓게 된 원인을 제주목에서 천연두가 퍼지던 때에 하필 눈길에 막혀 대정향교의 차가운 서재(書齋)에서 잠을 자게 되어서 몸을 조섭할

綠水淵洞, 危危凜凜, ■■■隕■■■■, 目先眩而不可正視, 匍匐而退. 이하 『邊景鵬文集』은 변경봉(2010)의 원문과 번역문을 참조하여 인용한다. 해당 문헌에 서는 찢겨서 원문이 훼손된 글자는 '■'로, 판독이 어려운 경우는 '□'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므로, 인용도 해당 활자본의 표기에 따랐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⁵⁾ 이 기록은 천연두로 열이 올라 진정하지 못할 때 ‘월경혈이 묻은 옷을 서너 벌 구하여, 물을 적셔 다 마시게 하였다는 치료법과 함께 눈길을 끈다.⁶⁾ 본래 전통의학에서는 열병의 원인을 과식이나 과도한 성행위로 보았는가 하면, 월경혈이 묻은 옷을 담근 물인 월경수를 열병과 황달, 객란과 무기에 다친 곳 등의 처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권복규 1999:29). 따라서 차가운 서재에서 자면서 몽정을 한 것을 원인으로 짐작하고 치료법으로 월경수를 마셨다고 기록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열병의 원인 및 처방이다.

한편, 천연두를 앓기 네 해 전인 1770년[庚寅] 변경봉은 송최정의 집에서 삼 개월 기거하면서 책을 읽다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린다. 이 집에 도착한 첫 날 농목(籠木) 냄새 때문에 저녁을 거른 이후로 삼 개월 내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이때는 ‘아픈 곳 없이 다만 지치고 어지러웠으며 멍하니 깨지 않았다[時則別無痛處 肢體委靡 昏昏不醒]’고 회고하였다. 거처가 바뀌어 쇠약해진 탓이었지만, 그 첫머리에 자신이 몇 개월 전에 유배 왔던 왕손이 그 집에서 병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 둔 것이 눈길을 끈다.⁷⁾ 나중에 푸다시[禡]를 하여 변경봉을 낫게 하였던

- 5)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其時痘疾遍滿州府, 兩縣則姑未及焉. 余以未痘, 不有懼意, 傲遊一望後, 乘雪徒步, 歸觀家庭. 又轉往大靜鄉校, 則風雪不休, 道途不通, 與番生數人, 伴臥冷齋. 寒栗遍體, 徹宵不寐, 忽夢登于高樓, 與小艾女子合歡, 而覺泄精可盈掬. 因戰成疾, 一飲全廢, 百節皆疼. 居此寒齋, 勢難救調.
- 6)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一夕, 熟火粥中, 聲如渴馬, 勇如怒虎, 乍躍乍仆, 人不堪持鎮, 急求月經三四件, 漬水飲盡然後始定也. 문집의 한글 번역에서는 “급히 월경한 피를 세 네 번 구하여, 물을 적셔 다 마시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월경수(月經水)를 가리키므로 “급히 월경한 피가 묻은 옷을 서너 벌 구하여, 물을 적셔 다 마시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 7)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昔在庚寅, 二王孫謫于大靜縣, 病死于塞洞宋最正家. 過數月後, 余讀書于武廳, 寄食于宋家. 時維三月陰雨未晴, 日幾夕, 將就食于宋家, 當門則籠木之臭, 擁臭, 對飯則不潔之氣, 反胃, 因推食而反于書室. 如

무격(巫覡) 일령(一靈)의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앓아 눕게 되었을 때 찾아온 무격들이 잘 아는 귀신이나 지진, 들어온 물건 등을 재앙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푸다시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일령이 동전점을 쳐서 서울에서 따라온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끼니를 거르게 하여 병에 걸린 것이라고 진단하고 푸다시를 한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변경봉의 부친은 일령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비용 부담이 없었던 데다가 마음이 급하여[先公姑不信其言. 所費不大, 急於焦悶] 그 말을 따랐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무당의 말을 들어 나라를 망하게 한 유선(劉禪)과 무당과 관리들의 협잡에 의해 만들어진 민간습속을 상징적으로 수용하면서 개선시킨 서문표(西門豹)의 예를 들어 유학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일을 기록하는 도입부에 일령의 진단을 연상시키는 두 왕손의 병사를 밝힌 것으로 보건대, 푸다시의 효험을 온전히 부정한 것은 아닌 듯하다.⁸⁾

푸다시는 푸닥거리를 가리키는 제주어로, 잡귀에 범접된 병을 치료하는 의례로 지금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별풀이-신풀이-잡귀풀이’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경봉은 “그 날 저녁 일령(一靈)이 손으로 총령(叢鈴)을 흔들고 입으로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초청하는 말을 하였는데, 이루 다 기억할 수 없었다[其夕, 一靈者, 手搖叢鈴, 口招地藏菩薩之說, 不可勝紀].”라고 하여 별풀이와 신풀이의 과정을 압축적으

是凡三月矣. 主人怪其廢食. 勸我還家.

- 8)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先公姑不信其言. 所費不大, 急於焦悶. 依其言施之. 其夕, 一靈者, 手搖叢鈴, 口招地藏菩薩之說, 不可勝紀. 及當子夜, 瞋目高聲, 比逐鬼魅, 以明刀亂刺肢體, 則毛髮盡豎, 以大豆猛叩瓢, 則聲若霹靂. 一靈, 手執上覆之衣, 揮揮逐逐, 出門而去. 余昏困入睡. 朝既盈矣. 思食之念, 遽然而生, 精神明快, 兩堅無根矣. 世之云, 鬼者, 正人不取云. 巫者識者遠斥, 鬼不殺人, 巫不活人, 理則然也.

로 표현하였다. 이어지는 잡귀풀이는 잡귀를 쫓아내는 제차로서 본격적인 푸다시에 해당한다. 이때 심방은 환자를 제상 앞에 앉혀서 머리 위로부터 몸에 흰 무명을 걸치고 신칼을 들고 환자의 주위를 춤추며 귀신을 쫓는 노래를 부른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높였고, 귀신을 내쫓을 때는 명도(明刀)로 사지를 어지럽게 찌르니 털과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섰대[及當子夜, 瞋目高聲, 比逐鬼魅, 以明刀亂刺肢體, 則毛髮盡豎].”라고 한 것은 잡귀풀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일령이 콩으로 내리치고 옷을 휘두르며 떠나갔다고 한 것은 도진과 끌레기송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⁹⁾

「갑인을묘년참흉시설(甲寅乙卯慘凶時說)」에서는 갑인년 8월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수확을 망치자 장계를 올려 구휼미 15000포를 받기로 하였으나 운송이 지연되어 새해까지 지연되면서 굶어죽는 유민이 속출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새해인 을묘년 정월 그믐에 구휼미를 실은 배가 화북과 조천포구에 도착하였으나, 이 가운데 다섯 척이 부서져 수천포의 쌀이 바다에 빠졌다. 다행히 보리가 풍년이 되어 사람들이 살 수 있었지만, 을묘 이전 10여만 명이던 제주 인구가 을묘년 후에 3만 명이었던 참혹했던 상황을 절절히 묘사하였다.¹⁰⁾ 이 가운데서 눈길

9) 푸다시의 제차와 관련된 내용은 김새미오(2010:106-107)를 참조하였다.

10) “甲寅乙卯慘凶時說”, 邊景鵬文集 其月二十七日, 天色猝然慘淡, 海波遽爾吼怒, 日將夕矣, 獐風怪雨, 起自東南, 左旋而復周, 壞新造之屋, 拔連抱之木, 天地震蕩, 日月晦冥, 人民慌惚, 坐而待朝, 朝既盈矣, 鹹雨霏霏者半日, 繼出太陽而曝之, 登高望遠, 則青變爲黑, 黃變爲赤, 觸目蕭然, 劫灰若爾, 顧其嘉禾, 則非惟絕穗, 并拔根而去, 墻壁頽壓, 男女失所, 木石顛倒, 道途不通, 烏雀於食藥鹿於殘, 此其天之降割, 物先人而失其常性也, 自其翌朝, 衆人喪魄, 食而不飽, 期於必死面之相顧, 生氣蕭索矣, 計其私蓄, 則三邑之內, 只有數三家, 顧其公廩, 則一月之間, 難濟丐乞戶, 於是邑宰州牧, 盡停捧糶之政, 僉同請粟之議, 直啓于朝廷, 請米二萬包, 聖上震驚, 先允一萬五千包, 行會完營使之趨時運送而其時差使員, 不知民急於呼吸, 欲齊船載而輻輳, 遲延新歲, 阻海不運, 則流民之餓殍, 自十月始, 而其冬風雪月, 恒栗烈陪常, 或有杜門不出,

을 끄는 것은 “탐라는 홀로 임진 병자의 난리를 벗어나 사람들이 많고 풍성하여 머물 곳을 알지 못할 정도였는데 불행히도 운수의 액을 만나 가련한 육칠 만의 무고한 백성들이 머리를 나란히 하여 죽었다 [蓋念耽羅獨蛻壬丙之亂, 人殷物阜, 不知所止, 不幸值其氣數之厄, 可憐六七萬, 無辜生靈, 駢首就死.]”라고 기록한 부분이다. 변방의 섬 제주는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자연재해를 복구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힘든 곳이었다.

『탐라사적(耽羅事蹟)』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비롯한 중국과 한국의 사료 가운데 제주의 주요인물과 사적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탐라의 사적을 기록하는 것인 만큼 탐라의 옛 이름 가운데 하나인 ‘탁라(托羅)’의 뜻을 풀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제목 아래에 주석 형태로 달아두었기는 하지만 신라의 혁거세, 고구려의 주몽, 백제의 온조보다도 앞서 탁라의 뜻과 삼을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탁(托)은 ‘크다’, 라(羅)는 ‘하늘’을 뜻하는 것으로, 신라(新羅)와 사라(斯羅)의 ‘라’도 같은 뜻이다. 또 다른 이름들인 탐모라(耽牟羅)나 건모라(健牟羅) 등의 ‘모(牟)’는 힘쓴다는 뜻이고, 고·양·부의 성씨 뒤에 붙는 을라(乙那)는 미칭(美稱)으로 보았는데 을두(乙豆) 을파(乙巴)와 같은 종류로 보았다.¹¹⁾ 이 부분은 『탐라기년(耽羅紀年)』에서 을나를 해석한 것

閭戶盡列者, 或有扶老携幼, 流死四方者, 甚至於夫婦紵臂而爭食, 父子不怙而圖生, 向陽之隅, 傍道之壑, 連枕繼踵, 無非僵屍也. 一日之程, 行人目見之屍, 殆過二三十也. 故馬不驚而人不惡焉. 至乙卯正月晦日, 載米三十船, 并泊于禾北・朝天浦, 浦窄而水退, 灘險而風起, 折檣破舸者, 五艘, 艘所載數千包, 皆失于海中. 此天實爲之, 且何及矣. 自茲以後, 捐瘠比前少減, 麥秋大登, 予遺有賴焉. 乙卯以前, 合人口十萬餘名, 乙卯以後合人口, 三萬餘名, 理之否泰, 物之盛衰, 於此可見矣.

과 유사하다.¹²⁾

『탐라사적』에서는 탐라의 기원, 삼국의 기원(3개 항목), 불교의 고구려 전래(1개 항목)에 이어 대(對)백제 관련 기사(3개 항목), 신라 복속 관련 기사(1개 항목)를 끝으로 삼국시대 탐라의 외교 관련 기사를 마무리한다. 이어서 57개 항목이 고려시대 탐라 또는 탐라출신 인물들에 대한 기사를 연대별로 정리하였다. 탐라와 관련된 인물 기사로는 제주에서 고종달이라고 불리는 고려 예종 때의 귀화인 호종단(胡宗坦), 예종 때의 고희충(高孝冲), 인종 때의 고당유(高唐愈)와 김부식(金富軾)에 대한 기사가 한 항목씩 기술되어 있다. 고당유는 고조기(高兆基)로 불리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는 두 개 항목이 더 있다. 그 외 양숙(梁淑), 변량(邊亮), 변윤(邊胤), 문창유(文昌裕), 고인단(高仁坦) 등 제주 삼성(三姓)과 성주, 왕자들에 대한 기사와 설명 가운데 변(邊)씨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56번째 항목부터 네 개 항목은 변씨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일곱 개 항목은 이전 항목과는 달리 제주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진다.

변경봉이 『탐라사적』 외 문집의 다른 부분에서 출생지이자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제주의 자연경관이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지 않은 까닭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기해도해록』에서 무속을

11) “耽羅事蹟”, 邊景鵬文集 (托羅(倅口語) 托 大也 羅 天也 以日月星辰羅於天故以羅爲天 如新羅斯羅之謂也 牟羅 牟倅也 高良夫...姓皆指天而爲姓 乙那者 疑當時尊美之稱 如赫居世・金闕智之謂也 乙者 如乙豆・乙巴(巴)之類 網羅四方曰羅)

12) 『耽羅紀年』에서는 “혹 이르기를 을(乙)은 을두(乙豆), 을파(乙巴)와 같은 종류요, 나(那)는 거서나(居西那)와 같은 종류로서 임금을 높여 부르는 칭호라 한다. 또 이르기를, 을나는 신라의 혁거세의 칭호와 같은 것이라 하니, 모두 방언으로 임금이라는 말이다[或曰乙如乙豆乙巴之類 那如居西那之類 尊君之稱 又曰乙那如新羅赫居世之稱 蓋鄉言王也].”라고 하였다. 관련 내용은 박종성(1999:121-149)을 참조할 것.

12 • 문화와 융합 제39권 3호(통권 47집)

비판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제주 풍속 가운데 조선유학자로서의 신념에 어긋나는 것이 많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제주에 대한 사적을 발췌 기록하고 있는 「탐라사적」에서도 제주사람의 관점이 아닌 조선유학자의 관점을 확실히 견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면훈장(面訓長)으로 추대되었던 할아버지, 면사장(面社長)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학문적 풍토가 있었”고, ‘당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여 변경봉의 아버지를 무식한 사람으로 묘사한 전설을 남겼을 정도’였기 때문에, 변경봉이 제주문화에 대해 온전히 객관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¹³⁾

오히려 「잡록」에서 “돈독한 풍습이 달라져 뻑뻑해지고 넉넉한 풍습이 변하여 다투어 각박해졌다”¹⁴⁾라고 하는 등 직접적으로 제주풍습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풍습이 변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경우도 있다. 또한 유학은 본래 무속을 비롯한 민간습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변경봉의 문집에 등장하는 민간요법과 민간신앙, 그리고 꿈에 나타난 징조[夢兆], 축첩(畜妾) 등은 당시 제주문화로 국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유학자의 문집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일일 수 있지만, 굳이 당시 제주에서만 벌어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에 온 관리나 유배인들과 달리 제주의 자연경관은 물론 풍속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변경봉이 제주 출신으로서 제주의 풍속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3) 이와 관련된 내용은 김새미오(2010:95-96)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변경봉의 문집과 현용준의 『제주도 전설』을 인용하여 부친에 대한 변경봉의 서술내용과 『제주도 전설』의 내용이 상충되는 이유를 ‘당시 사람들의 부러움’으로 추정했다.

14) “雜錄”, 邊景鵬文集 淳厚之風, 渝而及歸漓薄, 寬容之俗, 變而競爲刻深.

「기해도해록」에서 언급되는 푸다시도 마찬가지다. 그는 원인을 아는 병과 원인을 모르는 병을 앓다가 낫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두 번 모두 의원이 아닌 민간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의원이 부족했던 지방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가령 그러한 행위가 반유학적인 제주의 풍속이라고 생각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이 제주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온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원인을 ‘단지 어리석고 깨어나지 못한 탓’으로 보았던 목민관들이나 유배 온 유학자들이다.¹⁵⁾ 이들이 제주사회를 무속신앙이 제주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기록했던 데 비해, 변경봉의 무속에 대한 인식과 기록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겠다.

3. 변경봉의 조선 유학 이해

조선유학은 제주에서 계몽주의 교학이었다. 조선유학이 제주에서 대항담론으로 작동하려면 「탐라사적」에 등장하는 고려 시대의 고당유 등과 같이 조선정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지만, 제주에는 그런 인물이 부족했다. 물론, 조선 초기에는 토착지배세력의 지위가 탐라국의 유제를 간직한 채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지배체제와 병존하였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재지사족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과 병립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중수탈 현상이 가중되자 명목상 토관이 사라진다. 그런데

15) 제주 무속과 관련된 외지인의 인식에 관해서는 현길연(1983:95-129)을 참조할 수 있다.

14 ■ 문화와 융합 제39권 3호(통권 47집)

도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토착지배세력의 영향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토착지배세력들은 향교에서 유학을 배워 과거에 응시하여 양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독점하였다. 하지만 정작 조선유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는 부족했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중앙으로 진출하여 벼슬하기보다는 향직(鄉職)을 맡아 지방정치에서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귀경직(不貴京職)’ 경향이다(김치완 2013:220-222).

불귀경직의 경향은 계몽주의 교학으로서 제주의 조선유학이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전개되는 요인이 된다. 변방의 섬 제주에서는 조선 개국 당시부터 학교가 세워지는 등 관(官) 주도의 교화활동으로 일찌감치 유학이 시작되었다. 제주목과 정의·대정현에 각각 하나씩 향교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제주목의 판관이 교수직(教授職)을 겸직하다가 태종 18년부터는 별도로 교수를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세종과 성종대에는 각각의 향교에 교도(敎導)를 따로 두는 등 교수관 체제가 점차 강화되었다. 그리고 변두리의 유생을 위해 김녕(金寧)과 명월(明月)에는 따로 정사(精舍)를 두었고, 성(城) 내에는 향학당(鄉學堂)을 두었는데, 이것들은 사학(私學)에 해당된다. 이렇게 관학과 사학을 통해 조선유학이 집중적으로 교육되었지만, 향교가 과거시험 준비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제주도 출신 과거 합격자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제주도가 아닌 것으로 분석될 만큼 ‘불귀경직’의 경향이 강했다.¹⁶⁾

면(面)의 호적들을 관장하는 면사장이던 아버지에게 배우던 변경훈은 정의훈장으로 있다가 체직된 김명현(金命獻)을 11살 때부터 스승

16) 金眞英(2002: 92-96)에 따르면, 제주도에 본격적인 문무외방별시가 시행되기 시작한 인조 이전까지의 사마방목, 문과방목에 수록된 제주도 출신 인물은 총 40인인데, 이 가운데 제주도 거주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합격자들의 성씨도 高氏와 梁氏가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으로 삼았는데, 1794년 마흔이 되어서야 도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보다 이십 년 전인 1774년 약관의 변경봉은 도과에 응시하여 사수(寫手)에게 자신이 지은 부(賦)를 쓰게 하다가, 옆에서 친구가 베껴 쓰는 것을 보고 시험지를 찢고 나온 일이 있다. 과장에 있던 선비들이 비웃자 무과(武科)로 나아갈 생각을 잠시 하였으나, 아버지와 스승님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였다고 밝혔다.¹⁷⁾ 그런데 그로부터 이십 년이 지난 뒤 순무어사(巡撫御史) 심낙수(沈樂洙, 1739~1799)가 내도하여 실시한 도과에 응시하여 ‘관어해자난위수(觀於海者難爲水)’라는 논제(論題)에 1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평소에 글을 짓는 재주가 짧고, 논(論)은 애당초 규율이 어떤지도 몰랐으니 또 어찌 지은 글이 교묘한지 졸렬한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거친 말로 겨우 구성하여 백지로 내는 부끄러움을 요행히 면하였다.”¹⁸⁾

그가 과거에 급제한 일을 두고 “하늘이 내린 것이지 인력은 아니었다 [實天授非人力也].”라고 한 것은 분명히 조선유학자로서 보일 수 있는 겸양의 덕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런데 「주자격물치지변(朱子格物致知辨)」, 「주자어류(朱子語類)」, 「예기(禮記)」, 「직방씨(職方氏)」, 「회암집(晦庵集)」, 「주자의 서책」, 「대학혹문(大學或問)」 등 주자의 논저나 유교경전을 비롯하여, 「울곡집(栗谷集)」, 「성학집요초(聖學輯要抄)」, 「농암집(農巖集)」, 「송자대전(宋子大全)」 등 조선유학자들의 논저들을 문집에서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록(筭錄)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제주의 조선유학, 그리고 지방 유학자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

17)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昔於甲午冬, 設島科, 科題卽賜號星主. 余年十八, 入場, 董構賦句, 使寫手書之, 幾畢視之, 則乃友印而書也. 不勝憤恚, 手裂名紙而出, 滿屋之士, 笑其狂癡也. 因觀得中武科者, 不堪健羨, 遽欲投筆執弓, 畏其父師而不敢也.

18) “甲寅年設科時說”, 邊景鵬文集 余素短於屬文, 而至於論, 初不知矩律之如何, 更何言製綴之巧拙乎? 董構荒蕪之辭, 幸免曳白之恥.

다. 물론 당시 청나라에서 고증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만큼 차기체(筴記體)의 기록 방식은 당시 중요한 지식 습득의 방법이었다. 그렇다면라도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다. 하지만 「주자격물치지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율곡-우암-농암’의 학맥으로 이어지는 논저들을 차기한 것으로 보건대 당시 노론 시파의 학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김새미오 2010:102-103).

「주자격물치지변」에서는 주자의 「격물치지변」을 차록한 뒤, 이황의 「답기명언(答奇明彦)」과 정도전의 「불씨잡변(佛氏雜辨)」 일부를 인용 또는 차록하였다. 「주자격물치지변」은 주자를 중심으로 권력과 학문의 정통성이 판가를 나던 조선유학에서 정통과 사이비를 가르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문집에서 신변잡기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등과시몽조록(登科時夢兆錄)」에 이어서 「주자격물치지변」으로 차록을 시작한 것은 변경봉이 조선유학의 분기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그가 차록하고 있는 ‘사물의 당연지칙(當然之則)은 하늘이 부여해서 얻은 것이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¹⁹⁾’라는 부분은 과거에 급제한 일을 두고 ‘하늘이 내린 것이지 인력은 아니었다.’를 연상시킨다. 주자가 격물치지보망장을 지은 까닭은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서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바탕으로 궁구함을 지극히 하며, 이로써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나의 앞을 지극히 하는 것이 격물치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김유곤 2011:173-174). 변경봉은 「격물치지변」의 차기에 이어서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마음과 이치뿐이다[人之所以爲學 心與理而已]”라는 퇴계 이황의 「답기명언(答奇明彦)」을 인용한 것은 이 점을

19) “朱子格物致知辨”, 邊景鵬文集 天道流行 造化發育 凡有聲色貌象 而盈於天地之間者 皆物也 既有是物 則其所以爲是物者 莫不各有當然之則 而自不容已 是皆得於天之所賦 以非人之所能爲也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변경봉이 인용한 퇴계 이황의 「답기명언」은 12년 동안 서신을 통해 사칠논변(四七論辯)을 벌인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에게 보낸 서신의 별지(別紙) 일부분이다. 이 서신에서 퇴계는 주자의 보망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였다.²⁰⁾ 변경봉은 이 가운데서 일부분을 인용한 뒤, 이를 보충이라도 하듯이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의 「불씨잡변(佛氏雜辨)」 가운데 ‘마음이 한 몸을 주재하지만 천하의 이치에 닿아 있고, 이치는 만물에 흠어져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중리(衆理)의 묘(妙)를 알면 활연관통(豁然貫通)하게 된다’는 내용을 옮겨두었다. 「주자격물치지변」에 이어서 「울곡집(栗谷集)」에서 『어록(語錄)』과 『성학집요(聖學輯要)』, 「답성호원(答成浩原)」을 섞어가며 차기한 것은 해당 부분이 울우논쟁(栗牛論爭), 곧 인심도심논변(人心道心論辯)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572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친 서신왕래로 벌어진 인심도심논변에서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은 이황과 주희의 「증용장구서」에 입각하여 논지를 편 데 비해, 이어는 노수신의 인심도심설과 나흠순의 『곤지기』에 입각하여 논의를 펴나갔다.

「주자격물치지변」과 「울곡집」이 사칠논변과 인심도심논변의 주요 논쟁점을 정리해둔 것이라면, 「성학집요초(聖學輯要抄)」에서는 「대학장구」를 학문적으로 심화시킨 울곡의 정치사상을 정리하고 있다. 『성학집요』는 울곡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학』을 기본으로 저술한 군주학, 정치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신창호 2009:63-88). 그러므로

20)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書: 蓋先生說見於補亡章或問中者 闡發此義如日星之明 顧視雖常有味其言 而不能會通於此耳 其說曰 人之所以爲學 心與理而已 心雖主乎一身 而其體之虛靈 足以管乎天下之理 理雖散在萬物 而其用之微妙 實不外一人之心.

『주자격물치지변』에서 파생된 사칠논변과 그것을 기반으로 『중용』을 인용한 인심도심논변에 이어 『대학』의 정치학적 재해석 및 학문적 심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성학집요를 초록한 것은 그가 수기치인, 내성외왕(內聖外王)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가진 조선유학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변경봉은 「성학집요초」에서 1편 「통설(統說)」과 2편 「수기(修己)」를 차기한 데 이어 3편 「정가(正家)」와 4편 「위정(爲政)」을 오가며 차기하다가, 5편 「도통(道統)」에서 다시 2편 「수기」로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차기하고 있다.

「정가」가 『대학』의 제가(齊家)를 세분화하여 실제로 가문에서 행해야 하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면 「위정」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내용을 심화하여 시대정신의 인식과 국가 경영의 실재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이 둘은 상호 발산과 수렴의 중층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의 윤리와 상제례 등 「정가」의 차록 뒤에 임금이 치국평천하의 근원이라는 「위정」의 초록, 그리고 다시 일반 백성의 효가 하늘의 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는 「정가」 부분과 관련하여 제사와 효에 관한 『예기』를 인용한 「정가」, 세자가 태학에 입학하는 것이 세 가지 선(善)을 모두 얻는 것이라는 「위정」으로 수렴과 발산의 방식이 중층적으로 연결되게끔 차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현도통」은 본래 일상에서 중(中)을 체득하는 문제가 성학의 관건이었음을 밝히면서 수기와 치인, 그리고 전도의 문제임을 역설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덕(德)과 도(道)에서부터 인심과 천리(天理)의 교화에 대한 요약 후에 다시 「수기」로 돌아와서 「주자행장(朱子行狀)」에 언급된 거경(居敬)을 중심으로 한 주자의 모범과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에 언급된 경계의 말과 공부순서에 관한 주자의 말을 차기하였다. 이것도 치국평천하가 수신의 문제로 다시 수렴되는 중층적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학집요』의 차록 뒤에는 농업생산의 기틀이자 모든 형식절차의 기준이 되는 절서를 새롭게 정리한 「절서책(節序策)」, 삶과 죽음의 문제를 천지만물의 이기로 설명한 「수요책(壽夭策)」,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상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동호문답(東湖問答)」, 상례(喪禮)와 관련한 부분을 인용한 「해주향약(海州鄉約)」, 송강 정철, 구봉 송익필 등의 「제문(祭文)」과 우암 송시열의 「자운서운묘정비(紫雲書院廟庭碑)」 등을 초록하여 덧붙였다. 이는 대학의 공부가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정치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기술잡록(諸家記述雜錄)」 등을 인용하여 율곡의 인물평을 소개한 다음, 「전후변무장소(前後辨誣章疏)」를 비롯한 율곡의 「사직제학소(辭直提學疏)」, 「부배직제학사소(復拜直提學疏)」, 「만언봉사(萬言封事)」, 「답안응휴(答安應休)」 등에서는 학문하는 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뽑아 정리하였다. 결국 수기에서 치인으로 발산되었다가, 치인에서 다시 수기의 공부론으로 수렴되는 『대학』의 중층구조가 율곡의 글을 통해 재구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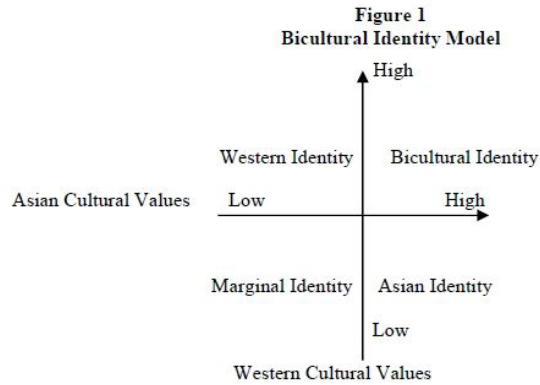
이상으로 보건대 “성리학적인 글을 두루 차록하고 있지만 ...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 이런 측면은 ... 당시 제주도가 성리학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 깊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 동시에 제주도 지배층에 본격적으로 유교사상이 두루 퍼져가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김새미오 2010: 103)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물론 주자와 퇴계와 율곡 등의 성리학서를 두루 차록하였을 뿐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 제주의 조선유학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주제의식을 가진 글로 재구성할 구상 하에 차기한 것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완의 글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조선유학의 핵심 논쟁점과 전개과정, 그리고 율곡

학파의 견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의 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중문화 정체성과 경계인

이주민은 자신들의 고유한 원문화를 가지고 이주지에 들어가 원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충격을 겪는 과정에서 원문화와 이주지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간다. 이것을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이라고 하는데, 이주지의 가치나 사고방식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원문화를 유지하려는 독자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자성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원문화의 유일하고도 특유한 성질을 뜻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신지의 문화 가치와 이주지의 문화 가치를 둘 다 높게 동일시하는 이주민은 이중문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주지의 문화 가치를 높게 가지면서 출신지의 문화 가치를 낮게 지니는 경우는 이주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주지의 문화 가치에 동화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출신지의 문화 가치를 높게 가지지만 이주지의 문화 가치를 낮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신지 정체성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의 문화 가치와 이주지의 문화 가치를 모두 낮게 동일시하는 경우는 주변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²¹⁾

21) 조민경, 김렬(2010:268-269)은 미국 University of the Pacific의 Qingwen Dong, Dean Phillip Gundlach, & John C. Phillips 등이 연구한 “The Impact of Bicultural Identity on Immigrant Socializa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in the United States”를 인용하여 이중문화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원 연구에서는 Asian Cultural Values와 Western Cultural Values가 비교되고 있



〈그림 3〉 이중문화 정체성 모형

이중문화 정체성은 두 문화를 동일시하는 능력으로, 이중문화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주지에서 획득한 새로운 가치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중문화 정체성, 곧 주류문화(mainstream cultural)와 원문화(ethnic cultural)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능력은 문화적 갈등(cultural conflict)과 문화적 거리감(cultural distance)의 구조로 설명되기도 한다. 문화적 갈등은 원문화와 이주지문화가 충돌하는 것인데, 신경질이나 차별대우, 언어와 이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강요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문화적 거리감은 이주지문화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인데, 언어적 어려움으로 이주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개인들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 구조의 조합이 이주민의 두 가지 집단 형태를 만드는데, 한 집단은 이중문

는 것을 출신국 문화가치와 이주국 문화가치로 수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육지부와 제주섬을 원문화와 이주사회문화로 대비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림 1]은 (Qingwen Dong, Dean Phillip Gundlach, & John C. Phillips, "The impact of bicultural identity on immigrant socializa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in the United State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5, 2006, 64)에서 인용한 것이다.

화 정체성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원문화 이주지문화 사이에 갈등을 느끼고 저항하지만, 다른 한 집단은 이중문화 정체성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두 문화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뿐더러 이주지문화를 저항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조민경, 김철 2010:269).

변경봉은 제주 출신의 조선유학자로서 이중문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기보다는 제주를 조선의 변방(邊方)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림 1. 이중문화 정체성 모형 상으로는 좌상분면의 '출신지의 문화기치보다 이주지의 문화가치를 높이 두는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사실 그는 우상분면의 이중정체성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다. 문집 가운데 이런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잡록」이다. 「잡록」에서는 제주사회가 중앙에 비해 명분을 더 중시한다는 점과 1목2현에 각기 다른 규정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변경봉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경사는 순수의 근본이요, 순수는 경사의 지엽[京師卽巡遂之根本, 巡遂爲京師之枝葉]”으로 전제하고, 지방에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중앙보다 심하다[然而送遂之名分, 甚於京師者]라고 하였다.²²⁾ 그러므로 제주사회가 다른 지역보다 명분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탐라의 뛰어난 집안은 청금(靑衿)을 최고로 생각했다[耽羅之甲族, 以靑衿爲最]”면서, 1738년[제주목]과 1761년[대정, 정의]에 시작된 청금 선발 규정이 각각 다르다고 한 것²³⁾으로 보건대, 대대로 벼슬 했던 집안이 드물었던 제주사회에서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향촌 사회를 다스리는

22) “雜錄”, 邊景鵬文集 我國專尚名分. 故以維持上下. 故雖天之降衷, 無異貴賤, 其習俗之粹駁, 聞見之敬肆, 上下自別, 貴賤懸殊者, 罔非自初及長所教養之如何耳. 京師卽巡遂之根本, 巡遂爲京師之枝葉. 然而送遂之名分, 甚於京師者, 此其好廣袖之弊. 至於金正愛纖腰之流, 及於餓死者然也.

23) “雜錄”, 邊景鵬文集 耽羅之甲族, 以靑衿爲最, 而濟州則自乾隆戊午始焉. 兩邑則自乾隆辛巳始焉. 而三邑之選棟靑衿之規, 初各不同.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청금록은 청색의 옷깃을 가리키는 청금(靑衿)에서 나왔다. 과거 응시자들인 거제(擧子)들의 옷깃을 청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유생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청금록, 또는 청금안에는 유생과 선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양반들이 향교 청금록에 등록하고자 한 것은 향교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규정이 있었고, 청금록에 등록되어야 향촌의 양반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전반 인조 때 이후부터 향교에서 정원 내 교생인 액내교생(額內校生; 양반)과 정원 외 교생인 액외교생(額外校生; 서얼과 평민)이라는 호칭 대신 청금록에 등재되는 동재유생(東齋儒生)과 그렇지 않은 서재유생(西齋儒生)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액내외로 구분되는 교생이라는 호칭보다는 청금록이 등재되는 동재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얼과 평민들이 액내교생으로 입학하면서 서재유생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 2005:65).

「잡록」에 따르면 제주목의 청금록은 1738년에 시작되었지만,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 1885~1956)의 『心齋集』에 따르면 영조 재위 시절인 1738년 이전에 없어졌다가 목사 홍중징(洪重徵, 1682~1761)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다. 이때 각 향촌사회에 운영이 맡겨졌기 때문에 선발과 운영 기준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변경봉이 청금록의 운용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청금유생을 뽑는 기준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그것과 관련된 상당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가(世家)는 대대로 이어온 연원을 잃지 않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비록 적(籍)에서 벗어났더라도 선조가 뛰어나거나, 사람들을 지시하는 별열이라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며, 사람의 장단점을 논할 때도 위험하거나 편파적인 습속이 없어, 거의 중도에 맞아 마땅할 것이다[世家者, 不失其直源之悠久, 新進者, 雖籍其外,

24 • 문화와 융합 제39권 3호(통권 47집)

先之烜赫, 揮人閥閱, 無過不及之弊. 論人長短, 無險與蹶之習, 庶幾次中而合宜也.”라고 하였다. 곧 전처와 후처의 소생이 형제인 데도 청금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청금록에 들어 있다 해도 청금록에 들어 있지 않는 집안과 결혼하여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군역 및 세금 면제 등의 특권과 관련하여 격렬한 갈등이 일어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김새미오 2010:109-113).

그런데 그가 고향 제주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갈등에 주목하여 특별히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잡록」에서 “돈독한 풍습이 달라져 뻑뻑해지고 넉넉한 풍습이 변하여 다투어 각박해졌다.”라고 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원문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문화정체성의 갈등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가 이렇게 문화적 갈등과 문화적 거리감을 관리하는 이중문화정체성은 ‘꿈’을 통해서 원문화를 투사하는 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어떤 사실을 두고 그것에 관한 ‘꿈’을 통한 예언과 전조들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것은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도 확인된다. 용비어천가 총 125장 가운데 3장에서 109장이 역사를 꿈 등의 예언과 전조를 제시하여 신화화했다면, 110장부터 124장까지의 계왕훈은 앞의 방식과는 거꾸로 선대의 신화를 역사 속에서 구현하기를 당부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역사가 신화를, 신화가 역사를 만나는 방식이다.²⁴⁾

개인 문집의 내용을 두고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지만, 변경봉의 문집은 5대손인 변신희의 「문집서(文集序)」에 이어서 「천제연동복택시몽조기(天帝淵東卜宅時夢兆記)」가 제일 처음 수록되어 있다. 「천제연

24) 용비어천가의 신화와 역사 부분은 최연식·이승규(2008:249-268)를 참조할 것.

동복택시몽조기」는 아버지가 천제연 동쪽언덕에 집터를 잡을 때 어머니가 꿈 할아버지 산소에 관한 꿈과 작은 돼지를 품에 안는 태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터는 정갈하고, 아이는 현달할 것이라는 몽조인데, 공교롭게도 그 마지막은 27세 때 부모님을 여의고 효도하지 못한 데 대한 아픔이 강조되고 있다.²⁵⁾ 문집에서 꿈에 대해 서술한 또 다른 편은 「등과시몽조록(登科時夢兆錄)」이다. 「등과시몽조록」은 두 번 과거시험에 응시했을 때 주변 인물이 꿈 꿈을 소개하면서 낙방했을 때도 꿈이 좋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꿈의 내용대로 부모의 상을 당하게 되었고, 급제하였을 때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꿈대로 급제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길흉화복은 하늘이 정한 것으로서 그 예조를 보여주지만,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고 결론 내린다.²⁶⁾

한편, 천연두가 회복되면서 원래 희었던 피부가 붉은 감색을 띠고 얼굴이 워자 사람들이 오래 살 징조라고 말한 것을 두고 변경봉은 혈액이 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 난 것(天賦)이라고 기록하였

25) “天帝淵東卜宅時夢兆記”, 邊景鵬文集 因往卜宅處觀之, 則基址甚淨. 棟樑咸具, 而見少猪自南而來, 體毛最妍, 面目可愛, 遽爾踉蹌入懷. 遂驚號■■■■而闌而鷄未唱矣. 自此有娠, 生不肖子, 丙子年庚子月丁亥日丁未時■■■■. 其夢兆論此命甲曰“丙子應日影之照墻, 丁亥屬小猪之入懷. 墓蔭旒■■■■福, 生得此子, 後必顯達.”余齒才三九, 俱失怙恃. 每追思其夢兆之言, 不覺哀成誦■■■■永抱風樹不停之痛也. ■■■■.

26) “登科時夢兆錄”, 邊景鵬文集 蓋人之吉凶禍福, 罔非天之所定. 神之先告, 惟人莫知於未形, 或追悟於已□. 將興之禎祥, 將亡之妖孽, 豈不章章乎? 甚明之理乎? 若彼夢寐昧昧之難明之事, 禽獸微微無知之物, 皆於吾身上吉凶禍福, 無不先示徵而後合符焉. 是知無所爲而爲不期然而然者也. 至若煩夢不見眞實, 春夢無有昭靈, 其故何也. 夫心思官也. 私思妄念, 千緒萬端, 則爲厥心病, 病遂失其虛靈之體用, 故雖有奇異之徵・亂雜之兆, 無異南柯之虛誕矣. 且逢春節則陰陽氤氳, 品物發生. 于時人之精神, 亦與天地元氣, 乘降飛揚, 故其睡鄉之紛擾, 莫有端緒, 竟歸亡羊之域, 是皆有夢而無驗也. 若無夢之人有夢, 則眞者 以其靜安然後能慮也. 無爲之人有夢, 則實者以其公明然後能通也.

다.²⁷⁾ 하지만 간병하던 아버지의 정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천연두 신이 있다면 아버지의 지극정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²⁸⁾ 더구나 『논어』 「용야」 편의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고 중만 하여 위에 있는 듯하다’는 말을 빌렸지만, 실제로 천연두신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절에 따라 병이 유행하는 것은 그 기운이 고르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요, 푸닥거리할 때 ‘내 마음을 바로 할 뿐이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경성(敬誠)일 뿐이라고 하여 유학자로서의 합리성을 고수한다.³⁰⁾

「기해도해록」에서도 천둥번개가 쳐서 돛대가 꺾이고 돛이 찢어지는 상황인데도 변경봉은 오히려 담담하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어, 살고 죽는 것이 어떤 일인지 생각지도 않았고, 여러 사람들이 당황하며 어지러워하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을 뿐이었다.”³¹⁾라는 진술은 “내 나이 스물 넷 때이니 기세를 말하자면 태산

27)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元無血色, 皆慮短夭矣. 及經痘疾, 全體赤紺, 面部癰完, 皆云壽徵 凡人之壽夭長短, 自有天賦, 則豈以血色之如何, 判彭殤於前後也哉?

28)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世人皆言痘神明靈, 按簿而行, 以司禍福云. 余嘗不信, 迨余爲痘也, 先公彈其止慈之情, 不計嚴沍, 侵晨沐浴, 淨器汲水, 薦于設位之前, 則依然心目之間, 白髮老丈, 儼坐床上, 暖然若嘉納虔誠焉.

29)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方其危劇時, 耳邊爛聞搗糲之聲. 其後聞之, 則果其日二十里外, 窆葬矣. 才及收膿老丈, 若有言曰, “吾今徙去某家”, 翌日某家, 女果痛臥, 終不起焉. 女之母, 已經痘之人也. 憤其女不淑, 足踏設位, 詬罵痘神, 而其母忽再發痘, 不數日凶終, 又喪其次女. 以此觀之, 人言不可誣也. 聖人曰, 敬鬼神而遠之, 又曰洋洋如在其上, 誠不可瀆神也, 又不可慢神也.

30)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蓋疾病時, 設神有無似近虛誕. 然而天行時疾也, 是其氣之不平而然也. 屈伸往來者, 鬱而不散, 結爲形影, 有時而存沒, 理或然也. 除穢有要道曰, 正吾心而已. 正心之方, 曰敬誠而已. 敬誠, 則有神可誠, 無神可諧. 母論有病與否, 敬誠二字, 不可斯須去心也.

31) “己亥渡海錄”, 邊景鵬文集 忽一塊黑雲, 自西北起, 疾飛如電, 梢工規知蒼皇, 而幕天席海, 無可奈何. 須臾吼怒之聲, 猶隕自天, 大風振作, 雨雪雜沓, 萬頃怒浪, 起如泰山之接天, 打若迅雷之擊物. 檣竹叶折, 帆席盡碎, 滄波往來於篷窗,

을 끼고 북해를 넘기에 무난한 기색이 있었고, 그 뜻을 궁구하자면 비록 용의 턱을 더듬고 호랑이 굴을 들어가도 두려운 뜻이 없었다.”³²⁾ 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아들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하던 집안사람들과는 달리 홀로 냉정을 유지하던 어머니의 태도와 같다.³³⁾ 제주를 찾았던 이들의 문집에서 대개 풍랑을 만나 혼비백산한 일을 제주와 관련된 첫 번째 인상적인 기억으로 서술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덤덤하다. 당시 스물 네 살 혈기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을 묘사할 때 『맹자(孟子)』를 인용한 것이나 어머니의 태도를 “아량(雅量)과 현덕(賢德)”으로 표현한 것도 상당히 유학적이다.

문집에서 제주문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원문화인 제주문화가 이렇게 꿈이라든가 예조 등으로 투사되면서, 결론이 주류문화인 조선유학의 교훈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어떤 긴장관계도 드러나지 않는다. 긴장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원문화인 제주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아차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속이나 축첩 등 다른 유학자들의 문집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제주문화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아시삼기사기」에 묘사된 제주 경관은 선경(仙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제된 자연 경관으로서, 세 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물을 중심으로 추억이 구성되고 있다. 「아시사적기」와 「문견록」, 그리고 「기해도해록」에서는 부친이나 체직된 김명헌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

人物出入乎龍宮。人皆判死，號哭徹天，爭以胡繩縛身於版楫，以爲不失屍身之計。

32) “己亥渡海錄”，邊景鵬文集 余時年二十四，言其氣，則雖挾泰山超北海而無難色，究其志，則雖探龍領蹈虎穴而無懼意。

33) “己亥渡海錄”，邊景鵬文集 蓋當初遇風漂蕩之時，舉家聞其音，莫不驚懼咨嗟，而獨先妣少無憂色曰，“終爲吾子則生，不爲吾子則死，焦慮何益？”及聞晚(免)危之信，亦無喜色。人皆服其雅量，而稱其賢德之所庇也。

을 통해서 계몽주의 교학으로서의 조선유학이 제주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청금록을 다룬 「잡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그가 주류문화인 조선유학의 주요쟁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있음에도, 그것을 독자적인 수준으로 엮어내지 못한 것은 그가 신화를 역사로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정착지 제주의 문화정체성

변경봉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여러 세대가 지났고, 많은 일들을 겪었다. 제주는 일제 변경봉이 제주문화를 원문화로 하여 주류문화인 육지부문화와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통제하면서 이중문화 정체성을 확보해나가던 때와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국내 최대의 문화 이주지가 된 지 오래되었다. 2016년 가을, 제주에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가 주관하는 ‘2016하반기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가 열렸다. 제주도민과 정착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강좌에서는 ‘제주 이주민을 위한 제주어교실’,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학교’ 등 모두 3개 반이 운영되었다. 정착주민들이 겪는 제주어 소통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화화 중심의 교육으로 그 속에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원형질을 캐 수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³⁴⁾ 그런가 하면 제주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주,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는 축제’가 열렸다. “문화예술인과 창작자, 제주지역민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 및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 것이다.

34) “제주문화의 원형질, 제주어로 배운다”, *국민일보* 2016.09.05.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08490&code=61122027&cp=nv>.

제주민예총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주최했던 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인과 문화이주민,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들이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³⁵⁾

지난 2014년 7월 1일 원희룡 제37대 제주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주가 지닌 사람과 문화,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키운다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듯하다. “문화협치를 통한 도민 문화시대”,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섬’ 구현”,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을 통한 창조시대 발판 마련”, “문화예술로 풍요롭게 행복한 제주 창조” 등의 과제가 현실화된 듯 제주에는 온통 ‘문화’의 바람이 분다(김치완 2016a:11-12). 하지만 그 바람이 부는 한 편에서는 “텃세로 갈등, 떠날 생각 많은 이주민”도 적지 않다. 2015년 11월 서귀포시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이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귀농 귀촌인 체험투어’를 실시했을 때, 일부 예정자들은 지역 텃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귀농인들의 현실에 실망하여 이주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³⁶⁾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하자 활황국면에 들었던 제주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제주도는 인구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인구 순유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덕분에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제주도 주택가격 상승이 사실상 인구요인보다는 저금리기조에 의한 투자수요의 유입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출되기도 했다. 주택난은 유입인구보다는 제주도 기존주민들의 주택수요 때문이라는 것이다(정수연, 강지협 2016:31-47).

35) “제주,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는 축제! 제주테크노파크, 네트워킹 파티 스탬프 투어 진행”, *제주도민일보* 2016.09.28. 기사: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501>.

36) “텃세로 갈등 떠날 생각 많은 이주민”, *제주신문* 2015.11.19. 기사: <http://www.jejuex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76>.

이제 제주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은 ‘문화예술의 섬’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놓여 있다.

섬이라는, 주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족했지만 주어진 자연 속에서 수놓음과 조낭정신으로 이어져왔던 전통적 제주사람들과 자본주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살다 때로는 쉬고 싶어,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해 오고 있는 이주민들이 짧은 기간에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³⁷⁾

자신을 ‘제주토박이’로 소개한 블로그의 주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문화브로커와 문화혁신자의 사이’라는 부제를 붙여 「제주토박이의 관점에서 본 제주이주민 1, 2」를 연재하면서 제주를 “문화적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2011년 이전 제주가 주변으로 인식될 때부터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을 “문화혁신자”라고 정의하고, 이들에 비해서 “제주의 문화와 제주사람들에 대해 그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고찰 없이 제주문화와 제주의 환경이 이들에 의해 왜곡과 과장,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 대상화” 시키는 이들을 “문화브로커”라고 정의한다. 이들에게 “제주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땅이라기보다는 상업화를 위한 대상의 땅일 뿐”,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것 같지 않은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면 언제라도 돌아가면 받아주는 ‘중심부’는 언제나 이들에게 기댈 곳”이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최근에는 문화혁신자로서의 먼저 정착한 문화관련 이주민과 문화브로커로서의 제주이주민들 사이에 문화패권과 관련된 갈등도 목격된다.”고 풍자한다. 하지만 이 날카로운 눈을 가진 제주토박이 블로거는 이렇게 말한다.

37) <https://brunch.co.kr/@jasonsungilkang/8>

제주이주민이 중심부에서 경험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맥락은 이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이 제주라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새롭게 구성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주이주와 관련한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 중 하나는 2016년 총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에 배정된 3석을 모두 석권한 데에는 최근 대량으로 이주해오고 있는 이들 제주이주민이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연구는 제주로 몰려든 정착주민이 상상했던 ‘그런 제주와 제주사람은 없다’는 제주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조선유학자가 이중문화정체성을 가졌다는 모순된 전제로부터 출발했다. 제주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순된 전제를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이것은 역설도, 그래서 모순도 아니다. 제주의 조선유학자 변경봉의 문집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는 제주가 이제 막 무속에서 유학으로 확산되어가는 시점에 전형적인 조선유학자로서의 삶을 산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제주문화라는 원문화를 조선유학이라는 이주지문화와 지혜롭게 조절하면서 내적으로 발산과 수렴이라는 중층적 층위를 구축하였다. 이 중층적인 구조의 모델은 그가 조선유학을 이해하기 위해 이용했던 『주자격물치지변』으로부터 「성학집요초」에 이르기까지 관통되고 있는 『대학』 삼강령과 팔조목의 이념적 모델과 닮아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오늘날 이중문화정체성 모형 가운데 원문화와 이주지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중문화정체성과도 일치한다.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이라는 조례의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문화이주민”이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정착주민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서 제주가 이주지문화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며, 정착주민들의 원문화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권복규, 황상익(1999). “조선 전기 역병에 대한 민간의 대응”, *의사학* 8(1), 대한의사학회, 21-32.
- 김새미오(2010).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2010, 93-118.
- 김유곤(2011). “한국유학의 『대학』 체재에 대한 이해(1)-『대학장구』와 『고본대학』의 체재를 개정한 학자를 중심으로”, *儒敎思想文化研究* 43, 한국유교학회, 165-198.
- 김치완(2013). “主體와 他者의 二重 視線으로 본 濟州의 朝鮮儒學”, *동서철학연구* 69, 한국동서철학회, 211-231.
- _____(2016a). “유학의 공간 담론과 문화공간의 재생”, *문화와 융합* 38(2), 문화와융합학회, 11-36.
- _____(2016b).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제주문화공간 분석”, *毗羅文化* 5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22-123.
- 박종성(1999). “제주지역 ‘삼을나전승’과 ‘천지왕본풀이’”, *정신문화연구* 22(2), 한국학중앙연구원, 121-149.
- 신창호(2009). “修己의 측면에서 본 『大學』에서 『聖學輯要』로의 학문적 심화”, *東洋古典研究* 43, 동양고전학회, 63-88.
- 오운정 외(2014).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연구”, *2014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집*, 한국정책학회, 296-315.
- 정수연, 강지협(2016). “제주도 주택가격 상승, 이자율효과인가? 인구효과인가?”, *鑑定評價學 論集* 15(2), 韓國鑑定評價學會, 31-47.
- 조민경, 김렬(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대한정치학회, 263-289.
- 최연식, 이승규(2008).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조선 건국의 정당화-신화와 역사의 간장”,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49-268.
- 한국역사연구회(2005).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창년사.
- 현길언(198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李衡祥목사의 神堂 첩보에 대한 인식”,

耽羅文化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95-129.

Qingwen Dong, Dean Phillip Gundlach, & John C. Phillips(2006). "The impact of bicultural identity on immigrant socializa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in the United State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5, 63-74.

“뒤틀세로 갈등 떠날 생각 많은 이주민”, *제주신문*, 2015.11.19. 기사: <http://www.jejuex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76>.

“제주문화의 원형질, 제주어로 배운다”, *국민일보*, 2016.09.05.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08490&code=61122027&cp=nv>.

“제주,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는 축제! 제주테크노파크, 네트워킹 파티 스탬프 투어 진행”, *제주도민일보*, 2016.09.28. 기사: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501>.

“제주토박이 이의 관점에서 본 제주이주민 1, 2” : <https://brunch.co.kr/@jason-sungilkang/8>.

【초록】

오늘날 제주는 ‘제주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만 제주를 말하는 이들의 말과 담론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역설을 체험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주를 찾는 정착주민과 도민, 그리고 그들의 사뭇 다른 문화가 뒤섞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와 미래, 제주적인 것과 제주적이지 않은 것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경계인들이 겪는 문제를 이중문화정체성이라는 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도출해내야 하는 이중문화정체성의 선례는 조선시대 제주 출신 유학자 변경봉(邊景鵬, 1756~1824)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고향인 제주에서 유학을 배워 과거시험에 응시하느라 한양을 오가다가 늦은 나이로 급제하여 내직과 향직을 오갔다. 그는 제주문화라는 원문화를 조선유학이라는 이주지문화와 지혜롭게 조절하면서 내적으로 발산과 수렴이라는 중층적 충위를 구축하였다. 이 중층적인 구조의 모델은 그가 조선유학을 이해하기 위해 이용했던 「주자격물치지변」으로부터 「성학집요초」에 이르기까지 관통되고 있는 『대학』 삼강령과 팔조목의 이념적 모델과 닮아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오늘날 이중문화정체성 모형 가운데 원문화와 이주지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중문화정체성과도 일치한다. 오늘날 제주가 이주지문화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이며, 정착주민들의 원문화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주제어 : 변경봉(邊景鵬, 1756~1824), 제주문화, 조선유학, 이중문화정체성, 원문화

〈Abstract〉

The Bicultural Identity of Joseon Dynasty Confucianist from Jeju ‘Byon Kyong-Bung(邊景鵬)’

Kim Chi-Wan(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nowadays, experiences the paradox ‘Jeju does not exist on its own but it only does by people who talk about Jeju’ however, meanwhile, the established inhabitants, the original inhabitants and their different cultures mingle in there.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problems in respect of the Bicultural identity which people in the boundary experience in the site where the past, the future, the indigenous Jeju things and non-indigenous Jeju things mingle. We can find preceding examples of the Bicultural identity, which we experience today and need to deduce, from the Confucianist from Jeju in Joseon Dynasty ‘Byon Kyong-Bung(邊景鵬 1756~1824)’. He learned Confucianism in his hometown Jeju and traveled between Jeju and Hanyang to take a state examination, and h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at a later age and serv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e sagaciously blended the ethnic Jeju culture with the Joseon culture and also internally established the multi-layered allegiance of diffusion and collection. This multi-layer-structured model resembles the ideological models of ‘Samgangnyeong(三綱領)’ and ‘Paljomok(八條目)’ of “*The Great Learning(大學)*” that go through “*Jujagyeokmulchijibyeon(朱子格物致知辨)*” and “*Seonghakjiipyochol(聖學輯要抄)*” which he used in order to understand Joseon Confucianism.

And today, this model corresponds to the Bicultural identity with high understanding of the ethnic and mainstream cultures among many Bicultural identity models. Here are good reasons to contemplate how Jeju would establish cultures for people from outside and how they would respect the ethnic culture of the established inhabitants.

Key words : *Byon Kyong-Bung*(邊景鵬, 1756~1824), Jeju Culture, Joseon Confucianism(朝鮮儒學), Bicultural Identity, Ethnic Culture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접수 완료되어 2017년 6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6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